

Original Article / 원저

여드름 관련 인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형기¹⁾ · 옥영길¹⁾ · 최용훈²⁾ · 정 호³⁾

¹⁾해울한의원

²⁾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³⁾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Clinical considerations on Factors related the Acne

Hyung-Kee Lee¹⁾ · Young-Kil Ok¹⁾ · Yong-Hun Cho²⁾ · Jung-Ho Kim³⁾

¹⁾Haeyul Korean Medicine Clinic

²⁾Departmen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³⁾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o investigate how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 habits of patients affect severity of acne which was determined by Korean Acne Grading system(KAGS). To adress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acne and subjective stresses from which patients suffer.

Methods : 86 patients answered to questionnaire sheet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life habits and rated their level of stresses as a number in the range between 0 and 10. Then an oriental medical doctor evaluated subject's acne grades, based of KAGS, through observations on papules, nodules, and scars before (medical) treatments. All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22 (software for windows). To clearly demonstrate association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life habits with KAGS grades,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AGS grades and the level of stresses was determin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Scheffe's post-hoc analysis.

Results & Conclusion : Majority of subjects were women, students between 15 and 25 years old, and patients with normal range of Body Mass Index(BMI). Dysmenorrhea presence and premenstrual exacerbation of acn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suggesting their potential influences on KAGS grades as major factors.

Key words : Acne; KAGS

I. 서론

여드름은 전 인구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사춘기를 전후하여 발생하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지피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¹⁾.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여 20세 중반부터 소실되기 시작하지만, 최근에는 25세 이후까지 지속되거나 새로 발생하는 성인기 여드름이 증가하고 있다²⁾. 사춘기의 여드름은 피지선이 많은 T-zone 부위에 많이 생기는 반면, 20세 이후의 여드름은 대개 입 주위나 턱선 등 피지선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U-zone을 중심으로 많이 생기며 특히 20세 이후에 발생하는 여드름은 생리나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³⁾.

한의학에서는 ‘白屑風’, ‘面游風’이라는 병명으로 불리었으며 青春期에 痘疹狀으로 나타나 青春痘, 顏面 및 頭頸에 주로 細碎한 白疹이 형성되어 疙瘡, 丘疹을 짜면 白色의 粉渣狀 물질이 나온다 하여 粉刺, 肺胃積熱로 발생된다 하여 肺風粉刺라 하였다⁴⁾.

여드름의 원인인 치료, 유발인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의 손 등⁵⁾의 연구에서 여드름 유발인자에 대하여 월경, 면열감, 스트레스, 변비, 부위 등 일반적 인자에 대한 고찰이 있었으나 식습관 및 수면, 화장, 세안 등의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 이에 저자는 일반적 유발인자 외에도 생활습관과 주관적 스트레스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울한의원내 내원한 환자 86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울한의원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문지에 일반적인 특성과 생활습관을 기록하고 여드름과 관련한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정도를 0에서 10의 범위에서 표기하게 하였다.

2) 여드름 등급 평가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이하 KAGS)을 근거로 치료 전 한 의사가 직접 구진, 결절, 반흔의 상태를 파악하여 대상자의 여드름 중증도를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22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과 KAGS 등급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KAGS 등급과 여드름과 관련된 대상자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의 관계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é 사후분석(Scheffé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전체 86명의 환자 중 남성은 32명, 여성은 54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5~20세가 31명, 20~25세가 39

Corresponding author : Jung-Ho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heongju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4, Yongdam-ro 105beon-gil,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360-190, Republic of Korea

(Tel : +82-43-229-3707, E-mail : omkljh@dju.kr)

• Recieved 2015/4/7 • Revised 2015/4/24 • Accepted 2015/5/1

명, 25세 이상이 16명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60명, 전문직이 10명, 사무직이 7명, 기타 9명이었다. 신장과 체중을 근거로 한 체질량지수(BMI)별로는 저체중이 16명, 정상체중이 60명, 과체중 및 비만이 10명이었다.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 근거한 등급별로는 grade I이 7명, grade II가 19명, grade III이 24명, grade IV가 22명, grade V가 12명, grade VI이 2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AGS Grade of Patients

Category		Number	percentage
Gender	Men	32	37.2
	Female	54	62.8
Age	15~20	31	36.0
	20~25	39	45.3
	25~	16	18.6
Occupation	Student	60	69.8
	Professional	10	11.6
	Office	7	8.1
	Others	9	10.5
Body Mass Index	<18.5	16	18.6
	18.5~22.9	60	69.8
	>23	10	11.6
KAGS	Grade I	7	8.1
	Grade II	19	22.1
	Grade III	24	27.9
	Grade IV	22	25.6
	Grade V	12	14.0
	Grade VI	2	2.3
Total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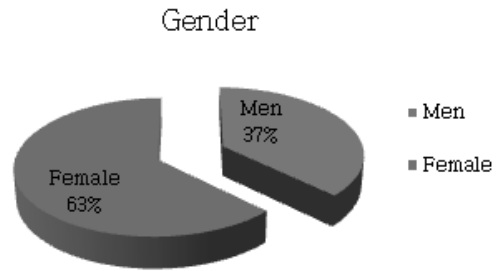


Fig. 2. Distribution of g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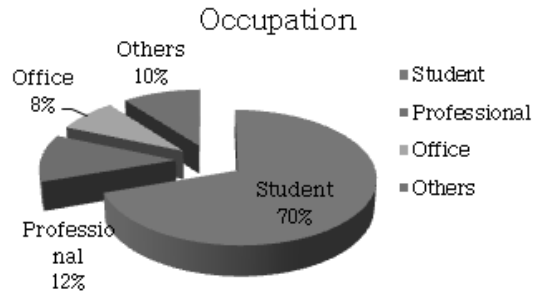


Fig. 3. Distribution of occu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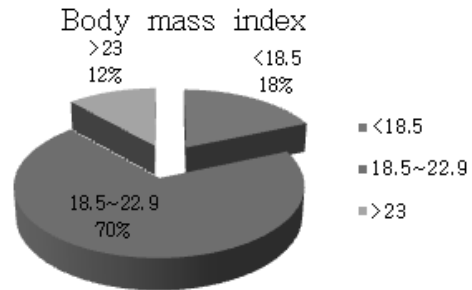


Fig. 4. Distribution of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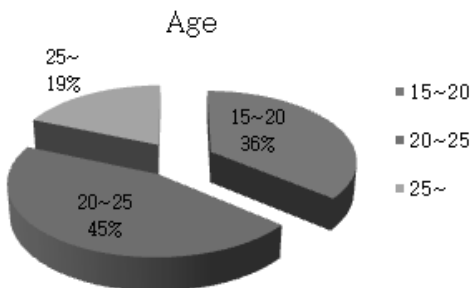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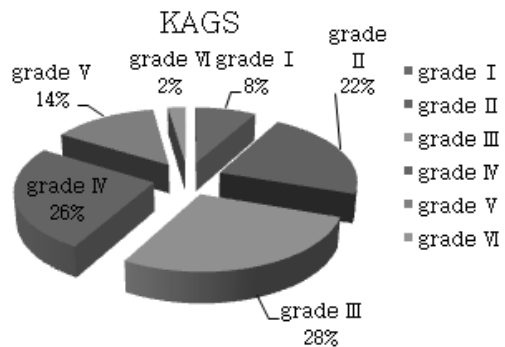


Fig. 5. Distribution of KAGS grade

유병기간은 1년 미만인 13명, 1~5년이 39명, 5~10년이 23명, 10년 이상이 11명이었다. 양방 피부과 치료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인원은 56명이었으며, 없다고 답한 인원이 30명이었다.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 기간은 1달 미만이 13명, 1~6개월이 26명, 6개월~1년이 6명, 1년 이상이 11명이었고, 방법은 내복이 13명, 외용이 9명, 내복과 외용을 겸한 경우는 34명이었다.

2.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 분석

생활습관 면에서 입면시간은 10시~12시가 34명, 12~2시가 41명, 2시 이후가 11명이었으며, 평균수면시간은 6시간 미만이 44명, 6~8시간이 38명, 8시간 이상이 4명이었다. 수면습관이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4명, 불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42명이었으며, 수면의 질에서는 깊은 수면을 한다는 인원이 59명, 예민하다는 인원이 27명이었다.

1주당 인스턴트식품 섭취 횟수는 거의 매일이 4명, 3~5일이 28명, 1~2일이 41명, 거의 먹지 않음이 13명이었다. 배변 횟수는 매일이 56명, 2~3일에 1회는

27명, 3~4일에 1회는 2명, 5일 이상은 1명이었고, 변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인원은 16명이었다. 1일 세안 횟수는 2회 미만이 19명, 2~3회가 66명, 3회 이상이 1명이었다.

54명의 여성 중 월경주기는 규칙적이 35명, 불규칙적이 19명이었으며, 월경통의 유무에서는 있다가 42명, 없다가 12명이었다. 월경전 여드름의 악화여부에서는 있다가 41명, 없다가 13명이었다. 평소 화장습관에서는 하지 않는다가 4명, 기초만 한다가 13명, 풀메이크업을 한다가 37명이었고, 1주당 화장 일수는 거의 하지 않음이 11명, 1~3일이 8명, 4~6일이 17명, 매일이 18명이었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과 KAGS 등급의 관계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과 KAGS 등급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KAGS 등급에 따른 월경통의 유무와 월경전 여드름 악화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5$).

Table 2. History of Patients

Category		Number	Percentage
Disease period	< 1 year	13	15.1
	1~5 years	39	45.3
	5~10 years	23	26.7
	> 10 years	11	12.8
Experienced treatment of Dermatology	No	30	34.9
	Yes	56	65.1
Treatment period	< 1 month	13	23.2
	1~6 months	26	46.4
	6 months~1 year	6	10.7
	> 1 year	11	19.6
Treatment method	Internal medicine	13	23.2
	External application	9	16.1
	Mixed	34	60.7
Total		86	100.0

Table 3. Life Habits of Patients

Category		Number	Percentage
Initiating sleep	pm10~am12	34	39.5
	am12~2	41	47.7
	am2~	11	12.8
Maintaining sleep	< 6 hours	44	51.2
	6~8 hours	38	44.2
	> 8 hours	4	4.7
Sleep quality	Good	59	68.6
	Bad	27	31.4
Weekly intake of instant food	Daily	4	4.7
	3~5 days	28	32.6
	1~2 days	41	47.7
	None	13	15.1
Stool frequency	More than once-daily	56	65.1
	2~3 days	27	31.4
	More than 3 days	3	3.5
Feeling after defecation	Complete	71	82.6
	Incomplete	15	17.4
Bowel habit	Normal	70	81.4
	Constipation	16	18.6
Daily washing up face	> 2 times	19	22.1
	2~3 times	66	76.7
	< 3 times	1	1.2
Total		86	100.0

Table 4. Menstrual History and Makeup Habits of Women Patients

Category		Number	Percentage
Menstrual cycle	Regular	35	64.8
	Irregular	19	35.2
Dysmenorrhea	Being	42	77.8
	None	12	22.2
Premenstrual becoming worse	Being	41	75.9
	None	13	24.1
Usual makeup habit	None	4	7.4
	Makeup base	13	24.1
	Full makeup	37	68.5
Number of days weekly makeup	None	11	20.4
	1~3 days	8	14.8
	4~6 days	17	31.5
	Daily	18	33.3
Total		54	100.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Patient's BMI, Life Habits and KAGS Grade

Variable	Category	KAGS grade												p-value			
		I		II		III		IV		V		VI			χ^2		
		n	%	n	%	n	%	n	%	n	%	n	%	n		%	
BMI	<18.5	4	57.1	3	15.8	7	29.2	2	9.1	0	0.0	0	0.0	0	0.0	17.213	0.070
	18.5~22.9	3	42.9	14	73.7	15	62.5	16	72.7	11	91.7	1	50.0				
	>23	0	0.0	2	10.5	2	8.3	4	18.2	1	8.3	1	50.0				
Initiating sleep	pm10~am12	3	42.9	8	42.1	9	37.5	9	40.9	5	41.7	0	0.0	0	0.0	2.863	0.984
	am12~2	3	42.9	8	42.1	12	50.0	10	45.5	6	50.0	2	100.0				
	am2~	1	14.3	3	15.8	3	12.5	3	13.6	1	8.3	0	0.0				
Maintaining sleep	< 6 hours	5	71.4	8	42.1	11	45.8	15	68.2	5	41.7	0	0.0	0	0.0	12.729	0.239
	6~8 hours	1	14.3	11	57.9	11	45.8	6	27.3	7	58.3	2	100.0				
	> 8 hours	1	14.3	0	0.0	2	8.3	1	4.5	0	0.0	0	0.0				
Sleep quality	Good	6	85.7	12	63.2	18	75.0	14	63.6	7	58.3	2	100.0	3.424	0.635		
	Bad	1	14.3	7	36.8	6	25.0	8	36.4	5	41.7	0	0.0				
Weekly intake of instant food	Daily	0	0.0	1	5.3	2	8.3	0	0.0	1	8.3	0	0.0	13.418	0.570		
	3~5 days	3	42.9	7	36.8	6	25.0	7	31.8	5	41.7	0	0.0				
	1~2 days	3	42.9	9	47.4	15	62.5	9	40.9	3	25.0	2	100.0				
	None	1	14.3	2	10.5	1	4.2	6	27.3	3	25.0	0	0.0				
Stool frequency	More than once-daily	6	85.7	13	68.4	15	62.5	13	59.1	7	58.3	2	100.0	4.478	0.923		
	2~3 days	1	14.3	6	31.6	8	33.3	8	36.4	4	33.3	0	0.0				
	More than 3 days	0	0.0	0	0.0	1	4.2	1	4.5	1	8.3	0	0.0				
Feeling after defecation	Complete	0	0.0	5	26.3	2	8.3	5	22.7	2	16.7	1	50.0	5.805	0.326		
	Incomplete	7	100.0	14	73.7	22	91.7	17	77.3	10	83.3	1	50.0				
Menstrual cycle	Regular	4	66.7	10	66.7	8	53.3	9	81.8	3	60.0	1	50.0	2.536	0.771		
	Irregular	2	33.3	5	33.3	7	46.7	2	18.2	2	40.0	1	50.0				
Dysmenorrhea	Being	6	100.0	9	60.0	14	93.3	9	81.8	2	40.0	2	100.0	11.361	0.045		
	None	0	0.0	6	40.0	1	6.7	2	18.2	3	60.0	0	0.0				
Premenstrual becoming worse	Being	1	16.7	13	86.7	13	86.7	9	81.8	4	80.0	1	50.0	14.410	0.013		
	None	5	83.3	2	13.3	2	13.3	2	18.2	1	20.0	1	50.0				
Usual makeup habit	None	0	0.0	0	0.0	3	20.0	1	9.1	0	0.0	0	0.0	16.470	0.087		
	Makeup base	3	50.0	3	20.0	2	13.3	1	9.1	2	40.0	2	100.0				
Number of days makeup weekly	Full makeup	3	50.0	12	80.0	10	66.7	9	81.8	3	60.0	0	0.0				
	None	4	66.7	1	6.7	3	20.0	2	18.2	1	20.0	0	0.0	15.783	0.397		
	1~3 days	0	0.0	2	13.3	3	20.0	1	9.1	1	20.0	1	50.0				
	4~6 days	0	0.0	6	40.0	5	33.3	3	27.3	2	40.0	1	50.0				
	Daily	2	33.3	6	40.0	4	26.7	5	45.5	1	20.0	0	0.0				

Table 6. Correlation between KAGS Grade and Patient's Subjective Stress Scale

Category	Mean±Standard Deviation						F	p-value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Grade V	Grade VI		
Subjective scale for acne	6.14±1.95	6.63±1.64	6.08±1.41	6.59±1.56	6.58±1.98	5.50±4.95	0.455	0.808
Subjective scale for acne scar	5.71±2.43	6.68±2.11	6.54±2.08	7.09±1.82	7.75±1.22	8.50±0.71	1.497	0.200
Stress for acne	8.43±1.27	8.74±1.15	7.25±2.27	7.73±2.16	8.00±2.04	9.00±1.41	1.526	0.191
Stress at work or schoolwork	4.43±1.81	5.53±2.59	5.71±2.68	5.55±2.86	5.25±1.29	3.00±4.24	0.669	0.648

4. 연구대상자의 KAGS 등급과 대상자의 주관적 인 스트레스 척도의 관계 분석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여드름의 심한 정도, 흉터의 심한 정도, 여드름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와 KAGS 등급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IV. 고 찰

여드름은 흔히 발생되어 사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피부병변으로 생각되나 때에 따라서는 중장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도 하며 염증이 심하여 반흔이 형성되기도 하는 질환이다. 특히 심상성 여드름(Acne Vulgaris)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모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면포, 구진, 농포, 낭종, 결절 및 때로는 반흔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피지선이 밀집되어 분비가 많은 부위인 얼굴, 목, 등, 가슴 등에 많이 나타난다⁴⁾.

여드름의 의학적 원인은 남성호르몬에 의한 피지 분비의 증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모낭 입구의 과각화와 모낭 폐쇄, Propionibacterium acnes의 증식, 염증 유발, 피부장벽기능의 이상이 있으며, 기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잘못된 세안 및 화장법,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짜는 것, 화장품, 피부자극, 햇빛, 월경, 계절, 화학물질, 약물 등으로 다양하다⁶⁾.

한의학적 여드름의 病因病理는 肺經風熱이 顔面部로 外溢하여 나타나는 경우, 飲食不節하고 肥甘厚味를 과식하여 발생한 濕熱이 顔面部로 逆上한 경우, 血行이 不暢하고 久濕이 內程하여 형성된 痰熱이 肌膚에 鬱滯한 경우, 衝任脈의 氣血不和로 인하여 肌膚의 疏泄기능이 不暢되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Korean Acne Grading System, KAGS)은 한국인의 임상 및 역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피부색의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된 도구로 여드름 환자의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⁸⁾. 국내 한의학 연구는 성 등⁹⁾의 연구와 윤 등¹⁰⁾의 연구에서 증례보고나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KAGS가 활용되었다.

기존에 여드름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최¹¹⁾, 손 등⁵⁾의 연구가 있었고, 체질량 지수 및 생활습관과 여성의 여드름 중증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박 등¹²⁾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상자의 수가 적거나 여성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많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이들과 여드름 중증도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저자는 여드름 전문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환자의 성별, 연령, 직업, 신장 및 체중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수면, 음식, 배변, 여성의 월경 등의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한국형 여드름 중증도 시스템에 따라 여드름의 중증도를 구분하여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이 여드름 중

증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여드름의 중증도와 여드름과 관련된 환자의 주관적인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86명으로 남성이 32명, 여성이 5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5~20세가 31명, 20~25세가 39명, 25세 이상이 16명이었다. 직업군은 학생이 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문직 10명, 사무직 7명, 기타 9명이었다.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으로 파악한 체질량지수는 저체중에 해당하는 18.5미만이 16명, 정상에 해당하는 18.5~22.9가 60명, 과체중 및 비만에 해당하는 23이상이 10명이었다. 대상자의 여드름 유병기간은 1년 미만이 13명, 1~5년이 39명, 5~10년이 23명, 10년 이상이 11명이고, 대상자 중앙방 피부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56명이었다. 치료 기간은 1개월 미만이 13명, 1~6개월이 26명, 6개월~1년이 6명, 1년 이상이 11명이었으며, 치료 방법으로는 내복이 13명, 외용이 9명, 병행이 34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체질량지수가 KAGS 등급과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70$).

생활습관에서는 수면, 음식, 배변, 세안습관, 여성의 월경주기, 월경통, 월경전 악화여부, 화장 습관을 조사하였다. 수면은 입면시간, 유지시간, 수면의 질을 각각 조사하였으며, 입면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12시가 34명, 오전 12시에서 2시가 41명, 오전 2시 이후가 11명이었다. 수면 유지 시간은 6시간 미만이 44명, 6~8시간이 38명, 8시간 이상이 4명이었고, 수면의 질은 폭 잔다고 응답한 수가 59명, 예민하다고 응답한 수가 27명이었다. 수면상태와 KAGS 등급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음식은 1주간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일수를 조사하여 매일이 4명, 3~5일이 28명, 1~3일이 41명,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가 13명이었다. 인스턴트식품의 잦은 섭취가 여드름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배변 습관은 배변 빈도, 배변 후의 느낌, 변비 여부

를 조사하였다. 빈도는 매일이 56명, 2~3일에 1회가 27명, 3일 이상에 1회가 3명이었고, 배변 후 느낌은 시원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71명, 시원하지 않다고 응답한 인원이 15명이었다. 이 중 일반적인 변비의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16명이었다. 변비가 여드름의 정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1일 세안 횟수는 2~3회가 66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2회 미만이 19명, 3회 이상이 1명이었다. 세안 횟수는 여드름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4명의 여성 대상자 중 35명이 월경주기가 일정하다고 응답하였고, 19명이 불규칙하다고 응답하였다. 월경통은 42명이 있다고 하였으며, 12명이 없다고 하였다. 월경 전 증상의 악화여부는 41명이 그렇다고 하였고, 13명이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화장은 거의 안한다가 4명, 기초화장만 한다가 13명, 풀메이크업을 한다가 37명이었으며, 1주간 화장 횟수는 거의 하지 않는다가 11명, 1~3일이 8명, 4~6일이 17명, 매일이 18명이었다. 월경통의 유무($p=0.045$)와 월경 전 증상 악화여부($p=0.013$)가 KAGS 등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화장의 정도가 여드름의 악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p=0.087$), 월경주기와 1주 화장 횟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대상자가 느끼는 여드름에 대한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와 KAGS 등급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스스로 느끼는 여드름과 흉터의 심한 정도,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 평소 학업이나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0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KAGS 등급과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월경통 유무와 월경 전 여드름의 악화여부가 KAGS 등급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어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드름의 원인인 호르몬의 변화와 한의학적 원인 중 衝任脈의 氣血不和가 임상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검증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KAGS 등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박 등¹²⁾의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이 여드름 중증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많은 대상자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습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주당 인스턴트식품 섭취 횟수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맵고 짠 음식의 기호가 여드름 중증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¹³⁾가 있어 추후 변수를 달리 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KAGS 등급과 여드름에 대한 환자의 스트레스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시각적 척도로 표시하게 하여 평가하였으나 향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여드름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여 KAGS 등급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결 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여드름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여드름과 관련된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와 KAGS 등급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 15~25세의 학생, 정상 범위의 체질량지수를 가진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2.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KAGS 등급의 연관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환자의 생활습관과 KAGS 등급의 연관성을 확인

한 결과, 여성에서 월경통의 유무와 월경전 여드름의 악화여부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4. 환자의 여드름과 관련된 주관적인 스트레스 정도와 KAGS grade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eferences

1.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Dermatology 4th edition, Seoul:Ryo Moon Gak, 2001:461.
2. JY Jeong, CM Ha, Primary care of skin disease revision vol. 1, Chungbuk:MD world, 2006:391-8.
3. BJ Kim, SJ Lee, Aesthetic dermatology, Seoul:Ryo Moon Gak, 2009:115-37.
4. SS Roh, Dermatology, Seoul:Eibc, 2006:737, 757-9.
5. BK Son, IH Choi, Correlation between Prognosis and Factors on Acne Patient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8;21(1):113-20.
6. HA Joo, HJ Bae, CY Hwang, A Literature Study about Comparison of Eastern-Western Medicine on the Ac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2):1-19.
7. Korean Traditional Dermatology Association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Textbook of Traditional Korean Dermatology & Surgery, Seoul:Sunwoo, 2007:486-90.
8. KJ Sung, YS Rho, EH Choi, JJ Oh, JH Lee, SW Kim, NI Kim, Korean Acne Grading System, Korean J Dermatol, 2004;42(10):1241-7.

9. EJ Seong, EH Jo, MC Park. A Clinical report on the Acne Treatment with AMT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0;23(3):236-46.
10. YH Yun, TY Kim, IH Choi.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with Tryptophan and Riboflavin for the Treatment of Acne vulgaris.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2;25(4):89-98.
11. IH Choi. A Clinical study of Recurrent Acne in the Oriental Medicine.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00;13(2):140-51.
12. JY Park, HR Cho. Correlation between Women's Body Mass Index, Daily Habits and Acne Severity. Korean J Obes. 2008;17(2):99-100.
13. BH Park.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ating habit, water containment on skin surface and skin problem. Sejong University. 2004.